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세 주일 앞으로 다가온 '95 예수사랑 큰잔치 금주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여

전교회 전체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예수사랑 큰잔치에 집중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예수사랑 큰잔치 헌신예배로

'95 예수사랑 큰잔치가 세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전도회 별로, 각 교구별로 준비하여 오고 있어 보다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예수사랑 큰잔치는 이제 막바지 정리 단계이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온 사람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며 준비해야 한다.

금년에는 각 전도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다. 요한 전도회, 베드로전도회, 여전도회 연합 전도세미나, 이번 토요일(27일)에 모일 바울전도회 연합모임 등이 실제적인 상황을 헤아려 가며 가능한 일부터 준비하는 자세였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마지막 실무적인 준비에 여념이 없다. 봉사분과에서는 금년에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차량, 안내 등의 중요한 일을 맡기로 했다. 따라서 교회 외곽의 안내와 주일에 밀어달릴 차량 안내 등을 청년·대학부 회원들이 참여하여 봉사하게 된다. 전 교회적인 주요행사에 청년부와 대학부 회원들이 전원 동원되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준다면 청년·대학부 회원들은 물론 교회 모두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다.

대학·청년부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각 교구의 전도회 임원 및 회원들은 오로지 전도에 힘쓰게 된다. 예년의 경우는 전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될 전도회 임원들이 봉사와 안내에 투입되어 전도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준비위원회는 모든 준비를 마무리 지으면서 금주는 특별새벽기도회로 모이기로 했다.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모여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 그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다소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다짐하며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또한 온 교회가 예수사랑 큰잔치라는 전도운동으로 한 마음이 됨으로 교회 전체에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며 각 개인이나, 교구들도 이로 인해 새로운 부흥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다.

각 교구는 이 일로 인해 새벽에 함께 차를 나누어 타고 오는 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피차 격려하며 함께 참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다. 이번 기간 중 새벽기도회는 I, II부 대신 새벽 5시에 한번만 드린다. 이번 새벽기도회에는 각 교구별로 좌석을 배치했다. 1년에 단 한차례의 5일간의 특별새벽기도회인 만큼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도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이다.

또한 오늘 저녁 찬양예배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예배로 모인다. 이 시간에는 지난 5월 6일 실시한 그림그리기대회 표어 공모에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다.

전하자 예수 사랑 모이자 충현교회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자기 점검표

예수사랑 큰잔치가 세 주 앞으로 다가 왔다. 과연 나는 이 일에 어느 정도의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각자 아래 사항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자.

- 태신자가 있습니까? ()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
-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합니까? ()
- 태신자용 1, 2차 전도편지를 보냈습니까? ()
- 특별새벽기도회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
- 초청전도집회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하는지 아십니까?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특별새벽기도회 / 5월 22일(월) ~ 5월 26일(금)
- 초청전도집회 / 6월 7일(수) ~ 6월 9일(금)
- 예수사랑 큰잔치 / 6월 11일(주일) I-V부 예배

-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기도제목 -

-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교회와 개인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 태신자를 바로 정하게 하시고 결실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 모든 전도운동, 기도운동들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 9595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9시부터 5분간 기도합니다. 9595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5월 21일(오늘) 오전 8:30~오후 3:30시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 헌혈을 할 수 있는 기준

- 16세 이상 65세 이하
- 남 50Kg 이상, 여 45Kg 이상
- 혈압정상, 맥박 정상인 사람
- 법정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 헌혈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가

우리 몸에는 체중의 약 8%의 혈액이

순환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 50~6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혈액 중 10% 정도는 만일의 출혈에 대비한 여분의 혈액인데 헌혈은 이 여분의 혈액중에 하는 것이기에 헌혈은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혈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의 1% 정도는 매일 땀이나 신진대사 작용이 반복되기에 헌혈을 하게 되면 조혈기능이 활발해지고 대뇌혈류가 촉진되어 평상시보다 빠른 속도로 신선한 혈액이 생산, 보충되므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의학계의 연구보고도 있다.

· 헌혈은 곧 자신의 건강진단이다

- 혈압측정 및 건강진단 / 헌혈자의 건강상태와 병력에 대해서 두루 살펴서, 헌혈여부를 판단하며 혈압도 측정한다.

- B형·C형 간염 및 AIDS·매독 항체검사 / 헌혈혈액은 헌혈자의 건강과 수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상기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 간 기능 검사 / 헌혈자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며 6가지 항목(AST, ACT, 총단백, 알부민, A/G 비, 콜레스테롤, 요소질소)으로 간기능과 지질대사의 이상유무를 진단해 준다

헌혈증서가 필요합니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고등부 학생위해

고등부 2학년 남학생중 한 명이 2년 반동안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항암제 투약 및 혈소판 수혈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등부와 구역식구들의 헌혈증서와 성금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휴일에는 혈액원이 쉬기 때문에 같은 혈액형(O형)을 가진 3~5명이 늘 대기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혈을 한 후 헌혈증서를 받아서 교육국 구현숙 선생(교환 505)에게 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게 쓸 것입니다. 아울러 헌혈 대기자(혈액형 O형)도 필요하오니 교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37 ●

음녀인 거짓종교의 죄

(계 17:1-18)

이 시간에는 음녀의 멸망장이라고 부르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 큰 음녀인 바벨론의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1. 큰 음녀의 행음

(1) 도대체 이 음녀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여자를 다섯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12:1), 둘째로 교회인 신부(19:7), 셋째로 배교를 나타내는 이세벨(2:20), 넷째로 음녀(17:1), 다섯째로 두로와 니느웨(사 23:15-16)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의 여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는데 본문의 큰 음녀란 누구입니까?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성은 바벨론 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와있는 음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2) 음녀 바벨론의 현주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반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의 현주소는 많은 물 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15절에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즉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량이 보다 더 구체화 되어진 백성과 나라들을 뜻합니다.

(3) 음녀의 음행 대상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땅의 임금들, 음녀의 지배를 받고 물질문명과 향락에 도취한 정치가들, 바로 땅의 임금들입니다(참고, 시 2:1-3). 둘째로 땅에 거하는 자들, 세속사회 속에서 사는 이러한 추종자들, 특별히 정권과 야합해서 특혜를 받아내는 대기업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간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취하면 해롭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취하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취해 살게 되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취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4) 음녀에 대한 성경의 묘사

첫째로 붉은 빛 짐승을 댔다고 했습

니다(3절). 붉은 빛 짐승, 붉은 용의 빛깔입니다. 이 말은 붉은 용의 지배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 음녀가 탄 짐승에는 참람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3절). 아닌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참람된 이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Babylon)의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하게 한다는 뜻인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인 바벨탑 문화는 혼잡합니다. 신앙도, 신학도 비뚤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악과 불의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3절 초반을 보면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맹수가 드굴드굴하고, 가시떨기가 많고, 물이 없어 갈증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 됨이라 …”(사 41:10)

셋째로 3절 마지막에 보면 음녀가 탄 짐승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입니다(9절).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 뿔은 열 왕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영광을 짐승에게 바친 왕들입니다.

넷째로 음녀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습니다(4절). 더욱이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인간은 물론 단장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입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이 바벨론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5절)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는 사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번져가는 복음의 역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줘야 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의 비밀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음행으로 역사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2. 음녀와 짐승의 권세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했습니다.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나?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섯은 벌써 이미 있었고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

여기, 짐승과 음녀의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이 짐승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실컷 부려먹고는 음녀를 미워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놓고는 실컷 부려먹다가 권력이 생길만하면 제거시키는 것처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에게 …



면 다섯 나라는 구바벨론, 앗수르, 신바벨론, 메대파사, 헬라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더 이상 존재치 않고 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방 있는 나라는 바로 로마를 뜻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나라가 있는데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일곱번째 나라는 이제 다시 나타나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바벨론은 이러한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릅니다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 그들은 참람된 이름으로 가득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양과 큰 음녀와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선이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배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Faithful) 말합니다. 그들은 승리하리로다! 그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이기고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 음녀의 멸망

마지막 15-18절에 보면 음녀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 이 세상 나라는 멸

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죄의 댓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이 악한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은 전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나중 형편을 모르고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로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합동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승과 음녀의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이 짐승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실컷 부려먹고는 음녀를 미워합니다. 마치 북한에서 간첩을 보내놓고는 실컷 부려먹다가 권력이 생길만하면 제거시키는 것처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모든 것이 결단날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음녀의 도구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종교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점점 번져왔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들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경계하고, 무엇보다도 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더럽고 불의한 바벨론의 거짓 종교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음녀멸망장을 살펴본것처럼 이 세상에는 세속주의, 거짓종교, 쾌락, 술 등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특별기고 ② / 중헌교회 장년1부 대상 부부생활에 대한 앙케이트 *

바른 성경적 가정관과 부부의 성경적 위치 및 역할의 필요성 보여

이 한 수

(목사, 장년1부 지도, 충신대학원 신약학 교수)

교회학교 장년1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5월 27일(토) "부부생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장년1부에 출석하는 부부들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원고는 그 결과를 수치적인 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수치가 중헌교회 40대 부부를 모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한 모든 가정들이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에 게재하여 함께 나누려고 한다. 원고 분량 관계로 3회에 나누어 게재 한다. (편집자 주)

설문8(의사 결정의 주체)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의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총응답자는 205명이었다. 집안 문제를 남편 혼자 결정한다고 대답하신 분은 24명(12%), 아내가 혼자 결정한다고 대답하신 분이 9명(4%), 남편과 아내가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대답하신 분이 172명(84%)이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중헌교회 장년1부에 나오시는 부부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설문9(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만족도)

본인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207명이었다.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신 분은 46명(22%), 어느 정도 만족하신다고 대답하신 분이 95명(46%),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15명(7%), 매우 불만이라고 토로하신 분들이 29명(14%)에 해당되어 이것은 목회를 통해서 시급히 처방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또한 상당수의 부부들이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 여자의 경우는 49명(35%)에 이르고 남자의 경우에는 14명(21%)에 이르는 것을 보아서는 남자들 편에서 보다는 여자들 편에서 불만족을 토로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설문10(불만족의 이유)

배우자에 대해서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263명이었다. 총응답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응답자 개인이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답변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만족의 이유로서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신 분은 41명(16%), 성격상의 차이는 95명(36%), 건강상의 이유는 15명(6%), 지적 수준의 차이를 드신 분은 14명(5%), 성생활의 불만족을 이유로 드신 분은 16명(6%), 신앙상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드신 분은 27명(10%), 자녀 교육관의 차이를 이유로 드신 분은 32명(12%), 시댁이나 친정에 대한 태도를 이유로 드신 분은 20명(8%), 기타는 3명(1%)이다.

응답자들 중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불만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상의 차이로 인한 불만족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자녀 교육관의 차이나 신앙상의 의견차이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크리스찬 부부생활에 있어서 성격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목회에 있어서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설문11(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91명이었다. 남편이 권위주의적이어서 사소한 일까지 남편 혼자 결정하려 한다고 답변하신 분

은 13명(7%), 민주적이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변하신 분은 66명(35%), 가사 일은 아내에게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분은 38명(20%), 남편이 권위주의적이긴 하지만 가사의 일은 아내에게 맡긴다고 답변하신 분은 74명(39%)이었다. 위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의 남편들이 점차로 집안의 문제를 아내에게 일임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편은 밖에 나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영역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설문12(생일 선물 여부)

남편이나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200명이었다. 매년 생일선물을 받는다는 57명(29%), 가끔 받는다는 분은 90명(45%), 생일 선물을 챙길 만큼 자상하지 않다고 답변하신 분은 53명(27%)이었다. 생일 선물을 주는가 안 주는가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나 아내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13(부부간의 갈등 정도)

부부간의 싸움과 갈등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202명이었다. 부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분은 11명(5%), 좀 있는 편이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이 149명(74%), 싸움과 갈등이 좀 많은 편이나 참을만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37명(18%), 싸움과 갈등이 많아 부부관계가 심각한 정도라고 응답하신 분은 5명(2.5%)이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약 80%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반해서 갈등이 심하거나 아주 심각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41명(20%)에 육박하여 이들을 위한 목회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부부갈등이 심하거나 아주 심각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전체 응답자 67명 중에서 7명(10%)에 반하여, 여자들의 경우에 부부간의 갈등이 많거나 부부관계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변하신 분이 전체 응답자 135명중에 35명(26%)에 달하였다. 이것은 남자들 편에서 보아도 여자들 편에서 부부갈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문14(부부싸움의 방법)

부부간에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총응답자는 203명이었다. 싸움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109명(54%), 서로 말 안하고 상당기간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대답하신 분은 66명(33%), 서로 심한 말다툼을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22명(11%), 폭력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신 분은 6명(3%)이었다. 대다수의 응답자

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반면에 심한 말다툼을 사용하는 분들의 수도 11%나 되었고 폭력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3%가 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남자들의 경우 심한 말다툼을 한다는 분이 전체 응답자 64명중에서 5명(8%)인데 반해서 폭력까지 사용하기도 한다는 분은 없었으나, 이와는 반대로 여자들의 경우에 심한 말다툼을 사용한다는 분이 전체 응답자 139명중에서 17명(12%)이었고 폭력까지 사용하기도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6명(4%)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자들의 경우에 폭력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15(상담 대상자)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때 주로 누구하고 상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93명이었다. 혼자 고민할 뿐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90명(47%),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의논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62명(32%), 친구하고 의논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19명(10%), 교회 교역자나 목회자와 상의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5명(2.6%), 부모하고 의논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2명(1%), 신앙의 선배하고 의논한다고 응답하신 분이 15명(8%)이었다.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로 볼 때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목회자와 상담을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문제가 목회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담자로서 목회자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혼자 고민하고 말든지 남편과 일대일로 해결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가정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성경적인 처방을 내리는 일이 아직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설문16(신앙생활의 기여도)

신앙생활이 원만한 부부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60명이었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신 분은 107명(67%)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신 분은 45명(28%), 별 영향을 못 미친다고 응답하신 분은 6명(4%), 더 악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신 분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신앙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도록 어느 방향으로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만일 부부간의 가정생활이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목회사역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성경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설문17(가사 결정권의 주체)

가사 결정권은 어느 쪽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60명이었다. 남편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

다고 응답하신 분은 3명(2%), 아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16명(10%), 남편과 아내가 의논은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49명(31%)이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남편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신 분들보다도 아내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10%나 해당되어 가정 속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설문18(상호적인 도움의 여부)

남편이나 아내가 가사 문제에 있어서 잘 도와주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8명이었다. 잘 도와준다고 응답하신 분은 53명(34%), 가끔 도와준다고 응답하신 분은 88명(56%),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은 17명(11%)이었다. 이것은 대체로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일이 고유영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체로 상대방의 일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설문19(결혼 안한 미래의 추측)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4명이었다. 결혼한 현재 생활이 훨씬 낫다고 대답하신 분은 86명(56%), 결혼 안한 생활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21명(14%), 결혼하나 안하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하신 분은 47명(31%)이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약 45%에 해당하는 분들이 결혼초에 가졌던 부부생활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점차로 덜 가지게 되는지를 원인 분석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대치를 높일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설문20(자유치에 대한 평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더 있었을까 묻는 질문에 총응답자는 138명이었다. 결혼 안한 때가 더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91명(66%), 결혼한 생활이 내게 더 자유로운 시간을 준다고 대답하신 분은 53명(38%)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로부터 벗어나 봤으면 하고 동경해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설문 19번과 20번을 함께 연결하여 판단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조차도 부부생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바로 부부생활에 있어서 켜지고 있는 이런 적신호를 인식하고 바른 성경적 대안과 치료책을 제시할 때라고 본다.

신앙상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

설문21(배우자의 교회생활에 대한 평가)

본인의 남편 또는 아내의 교회생활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총응답자는 152명이었다. 배우자가 지나치게 교회생활에만 매달리고 가정은 소홀히 한다고 응답하신 분은 4명(2.6%),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가정일이나 세상일에 매달린다고 응답하신 분은 24명(16%),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신 분이 124명(82%)이었다.

대다수의 장년부 출석자들이 가정일과 교회일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만하다. 남자들의 경우 아내가 너무 교회일에만 매달린다고 응답하신 분은 22명의 응답자 중 2명(9%)인데 반해서 여자들의 경우에 남편이 너무 교회일에만 매달린다고 응답하신 분은 132명의 응답자 중에서 2명(2%)이었다. 과중한 교회일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양쪽에 모두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다음 주에 계속)

■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 삶을 긍정적으로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 드린다

오 동 혁
(제5-2교구)

지금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 삶을 긍정적으로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항상 감사 드린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 삶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가정에 불안한 나날들이 많았다. 1993년 당시 우리 가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합주택관계로 있는 집을 처분하여 주거 환경이 나빠졌고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생활 자체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는 조합주택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상태였고 조합은 사기 유령조합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우리는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별금도 내야했으므로 아파트도 포기해야만 되는 상태였다.

또한 본인의 사업도 86년부터 친구와 같이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여 기반이 잡힐 쯤에 친구의 욕심으로 다시 독립하여 시작하는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이때 충현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친구가 집에 찾아와 전도했으니 본인이 생각지 않았고 집사님도 마음을 정리 후 교회에 간다고 핑계를 대며 개종하므로 가정형편이 더욱 악화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 큰 아이(현재 국교6년)만 데리고 일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7시 30분에 만나 교회까지 데리고 다녔다. 그때 나는 나보다 집사님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 차라리 교회라도 가서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드디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므로 마음 속으로 그 사실을 반겼다.

그러나 본인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집사님이 교회생활과 믿음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을 보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구역 식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구역식구에 대해, 믿음밖에서 못 느끼던 사랑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고 또한 구역식구들은 집사님의 울타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때 집안을 덮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밝은 빛으로 변해 가는 것을 나는 옆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집사님의 생활이 밝아졌고 명랑하며 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암담했던 조합아파트가 다시 재구성되어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할 수 있는 희망도 생겼다.

이쯤 집사람과 구역식구들이 나를 전도하기 시작했고 나는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주일마다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것이 측은하여 처음에는 차로 데려다 주고 돌아왔다. 그후에는 차안에서 기다리다 아이들이만 데리고 왔다가 몇달 후에는 본인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교회생활이 1994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그후 나에게는 커다란 역사가 시작되었다. 예배를 드리므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하는 사업도 잘되기 시작하여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지게 되었다.

그해 10월에는 조합아파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입주하게 되어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여러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신문지상에서 발표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존업체와 한국독점 대리점계약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이다. 이 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갑자기 회사와 가정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나에게 큰 사명과 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일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 충성하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고 이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해 바른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국은 새가족부, 청년2부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충만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몇년 안된 일이지만 정말 우리 가족은 세상을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복한 생활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린다. 주님이 믿음 주심을, 충현교회에 다니게 됨을, 좋은 구역식구를 만나게 해주심을, 간중케 하신 것을 감사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5/26(금) 귀국
· 신성종 목사님 : 5/22(월)~26(금) 예수사랑 큰잔치 특별새벽기도회 설교 5/22(월) 이화여자대학교 채플 설교
2. 특별 새벽기도회(5월 22일(월)~26일(금), 초청전도집회(6월 7일(수)~9일(금))와 6월 11일(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1~5부, 찬양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태신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형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지켜주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세계선교대회를 축복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바울전도회 연합회 전도잔치

5월 27일(토) 오후 2시
교회 뜰에서, 베드민턴 등 운동도 하며

바울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27일(토) 오후 2시 교회 뜰에서 연합회 전도잔치 행사를 갖는다. 50세 이상 남성도들의 모임인 바울전도회는 각 교구 연합으로 태신자들과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도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아침운동시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친교와 베드민턴 경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 자연스럽게 교회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전도잔치는 바울전도회 회원들과 그 연령층의 불신자, 미리 접촉한 태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6일(금) 새벽기도 후 베다니홀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전 지회의 회장과 부회장 전도부장이 모인다.

임마누엘찬양대에서

작은음악회 개최
5월 27일(토), 오후 6시 30분

임마누엘찬양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금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져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임마누엘찬양대원중 재능과 기술을 갖춘 대원들이 모여 준비된 독창과 중년의 남성으로 구성된 남성중창, 꿈고 아름다운 선율의 여성중창, 환상의 목관5중주의 연주, 특별한 이 자리를 위해 출연해 주시는 초대손님과 함께 시대의 음악을 만나보는 음악의 세계가 충현의 성도들에게 열려있다.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기도와 격려가 풍성하며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훌륭한 음악회가 될 것이다.



예수사랑 큰잔치 준비하며 전도하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마지막 준비와 점검들이 한창이다. 지난 주일에는 바랍볼고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연합교구모임을 마치고 전 교인이 교회 주변 전도에 나섰다. 참으로 오랫동안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5월16일(화)에 모인 여전도회 연합 모임이 본당에서 있었다. 이한수 목사(협동목사, 장년1부 지도)의 특강을 들으며 그리스도인의 전도 사명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서 이진숙 사모의 강의를 통해 참여한 모든 여전도회원들이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됐다. 각 교회학교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6월 11일 전후하여 실시한다. 교회학교에서도 초청전도, 노방전도, 짝전도등의 방법으로 전도에 열심이다.

교회 직원모집

1. 사무직 및 미화직
(서무, 구매, 사무, 미화 기타)

2. 인 원 :

남 O 명(사무직은 30세 전후)
(미화직은 40세 이상)

여 O 명(여성 졸업자로
PC 가능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첨부),
타교인은 제례증명서 1부,
운전면허 소지자(남, 사무직)

4. 기 한 : 1995년 5월 30일 한

5. 제출처 : 사무국<552-8200(402)>

제5교구에서

"작은 효도 잔치"

5월 21일(오늘), 교구모임시간에

제5교구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구내 70세 이상 되시는 분을 초청하여 작은 효도 잔치를 베푼다. 오늘 교구모임 시간에 갖게 될 이 행사는 제5교구 살림찬양대의 특순과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함께 찬양 하는 시간, 축하케익과 축하선물을 드리는 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5월28일에는 가정세미나

또한 5월 28일(주일)에는 제5교구 자체의 가정세미나를 가지며 가정과 부부의 문제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가정의 의사소통'이란 주제로 모이며 예산부 부감인 이경현 권사가 담당한다.